

식물별 관리방안 (단풍잎돼지풀, 가시박)

□ 단풍잎돼지풀 제거시기

○ 효과적인 관리시기

- 종자생산 이전 제거, 4~6월 집중제거
- 7~9월, 개화기 이전 지상부 제거
- 7~10월, 집중 제거지에서 새로 생육한 식물체 제거

○ 발달단계별 관리시기

발달단계	관리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싹(유묘)	뿌리째뽑기												
영양생장	뿌리째뽑기 줄기자르기					집중제거							
꽃	뿌리째뽑기 10~20cm 이하로자르기							지상부제거					
열매	뿌리째뽑기 10~20cm 이하로줄기자르기									추가제거			

○ 제거시기별 방법비교

제거시기	생활사	장 점	단 점
6월	유묘시기	○ 뽑아내기 쉬움 ○ 맹아에 의한 2차 생장이 없음	○ 작업 능률이 떨어짐 ○ 발아시기가 일정치 않아 수시로 제거작업을 하여야 함
7월	생육 최성기	○ 베어내기로 작업 능률이 높음 ○ 작업 가능기간이 길어 제거 시기의 선택 폭이 넓음	○ 맹아에 의한 2차 생장으로 제거 효과가 소멸됨 ○ 추가 제거작업이 필요함
8월	개화기 전	○ 1회 제거로 제거 효과가 뛰어남 ○ 맹아에 의한 2차 생장이 있으나 개화결실 비율이 적음	○ 작업 가능기간이 짧아 동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
	개화기 후	○ 맹아에 의한 2차 생장이 없음	○ 결실에 의한 종자 전파 때문에 반드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함

□ 가시박 제거시기

○ 효과적인 관리시기

- 열매를 맺기 이전 제거하면 효과적
- 5~6월에는 나무 밑 어린 개체 집중 제거
- 제거 지역을 한 달 간격으로 관찰하고 개화되는 확인 시 즉시 제거
- 8월까지 새로 생육하는 개체 제거

○ 발달단계별 관리시기

발달단계	관리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싹(유묘)	뿌리째뽑기												
영양생장	뿌리째뽑기 줄기자르기					집중제거							
꽃	뿌리째뽑기 줄기자르기							추가제거					
열매	뿌리째뽑기 종자제거									추가제거			

□ 제거방법 (공통)

제거방법	장점	단점	적용대상
뽑아내기	○ 제거 효과가 좋음 ○ 소각할 필요가 없음	○ 발아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뽑아내기를 하여야 함 ○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됨 ○ 생육 최성기에는 뽑기가 어려움	○ 유묘시기에 적합 ○ 분포 면적이 좁은 경우에 효과적임
베어내기		○ 제거 후 맹아가 발아하여 제거 효과가 사라짐	
(낮 사용)	○ 적은비용과 인력으로 많은 면적을 제거할 수 있음	○ 예초기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○ 제거 적기에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음	○ 암괴와 같은 장애물이 있거나, 경사가 비교적 강하여 예초기 작업이 어려운 장소에 적합
(예초기 사용)	○ 적은 인력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제거할 수 있음	○ 예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됨	○ 분포면적이 넓고, 예초기 사용에 장애가 없는 지역에 적용
제초제 사용	○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	○ 제거 대상 이외의 식물이 비선택적으로 제거됨 ○ 환경오염의 문제점	○ 경사가 너무 강하거나 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
식생 복원 이루어짐	○ 식생 복원 이루어짐	○ 시간이 매우 오래걸림	○ 용도가 폐기된 군 주둔지 및 훈련장에 적합